



정토사상 첫 개론서 '정토불교의 세계' 펴낸 장휘옥씨 “자력수행과 타력신앙 한뿌리”

土)는 말과 나무아미타불을 염해 서 방 극락정토에 태어난다는 말은 궁극적으로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한다.

불교는 기본적으로 자력수행을 중시하는 종교지만 합된 인이 있으면 구원을 베푸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 아닐까. 이런 의문에서 출발한 장씨는 <정토불교의 세계>에서 궁극적으로 자력수행과 타력신앙이 하나로 합일되는 것임을 설명해 준다.

정토신앙은 미타(彌陀)정토인 극락에 왕생하여 그 후에 성불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승불교의 한 갈래. 정토사상을 살한 고승으로는 인도의 세친(世親)과 용수(龍樹), 중국의 혜원(慧遠) 담란(曇鸞) 도자(道冢) 선도(善導), 신라의 원효(元曉) 법위(法

位) 의적(義寂) 경흥(景興), 일본의 법연(法然)스님 등이 유명하다.

<정토불교의 세계>는 제1부 '이성함을 찾아서'에서 정토교의 기본경전(淨土三部經)인 <무량수경> <아미타경> <관무량수경>의 내용을 정확히

교학의 중심사상'에서는 정토사상이 성립된 이후 논란이 되어 온 몇 가지 문제를 사상전개의 순으로 정리했다. 이 책은 학술서로서의 의미도 크지만 한국불교 각 종단에 흡수되어 온 열불수행의 경전적인 근거를 확실하

문 국내 최초의 연구서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정토사상을 다룬 역본이 몇권 나와 있지만 대부분 일본 정토종이나 정토진종 위주로 쓴 책이어서 인도 중국 한국의 정토사상을 체계적으로 알기는 어려웠다. 국내에서는 <신라정토사상연구>(안계현 지·현음사 펴) <신라 미타정토사상 연구>(불교사학회 편·민족사 펴) 등이 나와 있지만 정토불교 전반을 다루지는 못했다.

일본 동경대 인도철학과에서 <원효의 정토사상>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20여년간 정토불교 연구와 수행, 강의를 계속해 온 장씨는 현재 '관음사상'을 다룬 원고를 집필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염불수행은 방편’ 경전토대 제시 나라별 정토사상 전개과정 요약

파악하기 위해 이 세 경전의 중요한 내용을 발췌해서 주제별로 설명했다. 이어 제2부 '정토사상의 역사와 전개'에서는 정토사상의 역사적인 발달과 전개를 인도 중국 한국 일본 등 각 나라별로 개관했으며, 제3부 '정토

개 밝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아미타 불의 본원력(本願力)에 의지한 일념(一念)수행의 의미를 제대로 알면 열불수행 자체도 하나의 자력수행의 방편이 됨을 설명한 것이다.

이 책은 또한 정토사상 전반을 다

“종교장벽 넘은 대화로 초대”

스님·수녀·학자 공동저서 '선불교와 그리스도교'

스님과 수녀, 종교학자가 불교·기독교간의 상호이해를 위한 책 <선불교와 그리스도교>(바오로출판 펴)를 펴내 대화해. 공동저자는 중앙승가대 교수인 종범스님과 서강대 교수인 김승혜수녀와 김희성교수.



12차례의 강의형식으로 꾸며진 이 책은 김승혜수녀가 원장으로 있는 씨튼연구원

4년 미련한 제1차 종교대화 장외의 내용을 모은 것.

처음 네 강의에서 김승혜수녀는 대승불교가 동아시아에 정착하기 전 초기불교의 가르침 및 불교와 그리스도교가 지닌 우주관의 근본적 차이를 설명했다. 이어 종범스님은 대승불교의 기본사상과 한국에 뿌리내린 선불교의 다양한 특성을 역사적인 측면에서 소개했다. 마지막

으로 김희성교수는 불교의 초사상과 그리스도교의 신관(神觀)간의 대화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구원론의 시각에서 보살과 예수의 역할을 비교해 논의를 끈다. "불자들은 이제 예수를 많은 보살들 가운데 한분 혹은 관세음보살과 같은 위대한 보살의 현현으로 간주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라는 설명이 흥미롭다.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책방 역시이론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삶은 꿈가 아니다	혜 원	여시아문
2	종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현대불교신문	여시아문
3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호 립
4	불교입문	조계종포교원	조 계 종
5	49개 공덕과 의미	전 집 부	이 바 지
6	그 마음을 바쳐라	김 재 동	용 화
7	법화사상	한기애애학회	여 래
8	참선교육	현 답	수 선
9	경허선사	이 흥 우	민 족 사
10	불교심리학	루네 요한슨	시 공 사

구입문의: (02)737-0695



“시로 읽는 70년대 인물 초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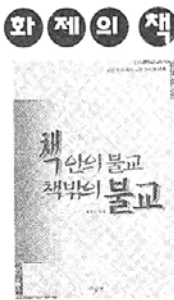
고은시집 '만인보' 10-12권 출간...30권목표

대사의 기록적인 인물이나 추억의 현장을 하나씩 담아 '시로 쓴 사회사', '시로 쓴 인물지(人物誌)'가 되고 있다.

86년~89년에 쓴 9권까지는 주로 들꽃이나 잡초처럼 강산에 번성하고 스러져간 고향과 고향 부근의 사람들을 그렸지만 10권부터는 시인이 70년대의 삶을 통해 만나고 스쳐간 사람들과 그 사람들과 관련된 사회적 명멸(明滅)을 노래하고 있다.

책안의 불교 책밖의 불교 김호성 지음

독서는 독자와 저자의 밀어(密語)다. 그 진지한 대화를 통해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는 김호성씨(동국대 강사)의 서평집 <책안의 불교 책밖의 불교>는 불교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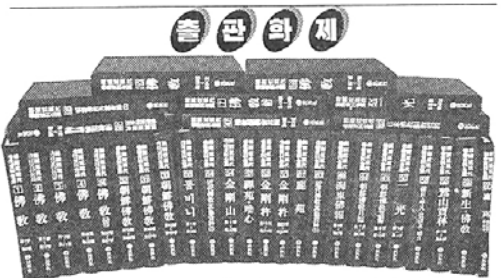


다. 여러 분야의 저자와 책 안팎의 불교 이야기를 흥미롭게 소개하고 있는 이 책은 그래서 쉽게 불교에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불교 입문서'의 성격을 띤다. 또한 서

블서 40권 서평...좋은책 읽기 길잡이

40권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다른 읽을거리다. 이 책에 실린 40권의 책들은 대중적 인지도와는 관계없이 저지의 안목에 따라 문학 역사 예술 과학 교리 등 불교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가 총망라되어 있

공하면서도 좋은 책 읽기의 방법을 알려주는 책 길잡이 역할도 하고 있다. 저지는 '책 이야기'를 통해 이상과 현실, 전통과 현재, 불교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을 보여 준다. (시공사 6천5백원)



민족사 '근·현대불교자료전집' 출간

전69권...1876~1960년대초 잡지·신문등 정리

도서출판 민족사(대표 윤창화)는 최근 한국 근·현대 불교사 연구에 획기적인 기초자료가 될 <한국근현대불교자료전집>(전 69권)을 출간했다.

(본지 89호 12면 참조) 각권 5백쪽 내외의 방대한 분량으로 구성된 이번 자료전집은 1876년부터 1950년대 말까지 국내에서 발간된 각종 불교잡지 26종과 신문·도서류, 문건류 등 기타 귀중한 불

교자료를 망라하고 있어 중요한 1차 사료(史料)가 될 전망이다. 동국대도서관 이철교 사서과장이 수집한 자료와 각급 도서관 소장자료에 김광식 독립기념관 책임연구원의 해제와 별도 수집자료 등으로 편집된 이 자료집이 발간됨으로써 보다 활발한 불교사관련 자료의 공개와 발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값 198만원. (02)732-2403.

명사추천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열살을 조금 넘긴 어린나이에 한 스님과 몇통의 편지를 주고 받은 적이 있다. 겨울 방학을 이용해 가족과 해인사에 다녀오게 되었는데, 절에서 돌아온 후 그곳서 처음 뵈게된 어떤 스님께 내가 보낸 철없는 편지에 그 스님께서 성의있는 답을 해주심으로 소중함의 맛을 다시 느끼게 되었다.

스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가운데 내 평생의 지침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인생의 가르침이 담긴 책은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하신 것이다. 그 덕분인지 책은 내게 참 소중한 것으로 여겨졌다. 가끔 어떤 책에서는 그 책에 흐르는 기운과 교감이 이루어질 때도 있다. 마치 제복만 차다봐도 전류가 흘러 지나간 감동의 건물이 다시 커지는 것처럼 말이다.

최근 읽은 책중에도 이러한 교감을 일으킬 만한 책이 있었다. <삶의 모습

결코 범취 쉬는 법이 없는 착실한 사공처럼, 유식으로 비롯되는 많은 문제들을 거치면서도 깨달음이라는 흐름속에 확립시킴을 잊지않는 것이다.

이 책에는 염취수행(念處修行·위빠사나)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그것 역시 수행방법의 하나로 이 몸발견 것일 뿐, 대승이다 소승이다 또 무엇이다 하는 분별에서 벗어나는 길은 분



황 남 재 (화가)

평범한 문구로 풀이한 '유식30승' 분별서 해방되는 과정 쉽게 서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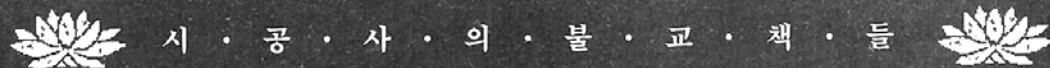
을 있는 그대로(장경각). '생활속의 유식 30승'이란 부제가 붙은 이 책은 재가불자 몇명이 송광사 정화(正和)스님을 모시고 세친(世親)보살(Vasubandhu)의 <유식삼십승(唯識三十頌)>을 공부했었는데, 그 내용을 스님께서 다시 정리하신 것이라 한다.

상세한 본문 설명에 적절하고 수준있는 질문과 답이 어우러져, 지식의 앞으로 끝내기 쉬운, 어려운 용어들이 차츰 내면의 앞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깨달음은 억지로 얻는 것이 아니라 문득 주어지는 것임을 섬뜩하도록 느끼게하는 수행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유식30승>을 풀어 쓴 것이지만, 스님은 유식성(唯識性)을 통한 깨달음의 완성을 더 강조했다. 마치 배를 타고 강을 흐르면서 수많은 나무터를 잠시 거처기만 할 뿐,

발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꺼어있음'임을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식은 철학적인 논리로 해설되어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스님은 다분히 형이하학적인 분석을 통해 철학적인 논리에 접근함으로써 난해하고 관념적인 기존의 틀을 가깝고도 따뜻하게 열어놓았다. 따라서, 학문으로서 불교를 알고자 하는 이에게는 모자람 없는 논리의 숲으로, 논리의 숲에서 언어의 유희에 잠겨있는 이에게는 참된 분별의 눈을, 그리고 분별의 저울에서 그만 내려 오고 싶은 이에게는 한순간 깨어남으로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될 수 있음을 단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무심의 상태에서 만난 보석과 같은 가르침이나 책은, 마치 수행길을 가다 뜻밖에 얻은 지도책과 같아서 그 감동은 더욱 절절하기만 하다.



책 안의 불교 책 밖의 불교

마흔 권의 책과 닮은 진지한 대화

시 한 편을 외워 봅니다. 소설 한 권을 읽었습니다. 밑줄 그으며 학술서를 공부합니다. 어디에서나 불교가 느껴집니다. 책을 덮고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 봅니다. 불교는 그곳에도 있습니다. 그렇게 책 안에도 책 밖에도 있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책 안의 불교 책 밖의 불교는 숨어 있는 좋은 책 마흔 권에 대한 서평입니다"



지은이 김호성

시공사 전화 588-0833 팩스 588-0835



시공 불교 총서는 지혜의 길을 알려주는 공경 소리로 읽는다

- 불교 길라잡이
 - 라틴어 지음 : 값 18,000원
 - 미라레바의 十萬頌
 - 가르마 벤처링이 옮긴 영락본을 이장섭 풀이 옮김 : 값 18,000원
 - 부처님의 아흔아홉 가지 말씀
 - 이영기 지음 : 값 5,000원
 - 알게 모르고 모르게 알고
 - 원희범 지음 : 값 6,000원
 - 禪으로의 초대
 - 스즈키 순유 지음 : 최서민 옮김 : 값 5,000원

시공 불교 총서

- 1 고타마 붓다의 생애
 - E H 브루스터 편지 / 최대섭 옮김
- 2 붓다의 옛길
 - 피어터시 지음 / 권경수 옮김
- 3 경전의 성립과 전개
 - 미즈노 고겐 지음 / 이미영 옮김
- 4 불교 철학사
 - D J 캄루파하나 지음 / 김중국 옮김
- 5 불교 심리학
 - 루네 E A 요한슨 지음 / 최대섭 옮김
- 6 유식입문
 - 디카서키 지키모 지음 / 이지수 옮김(근간)